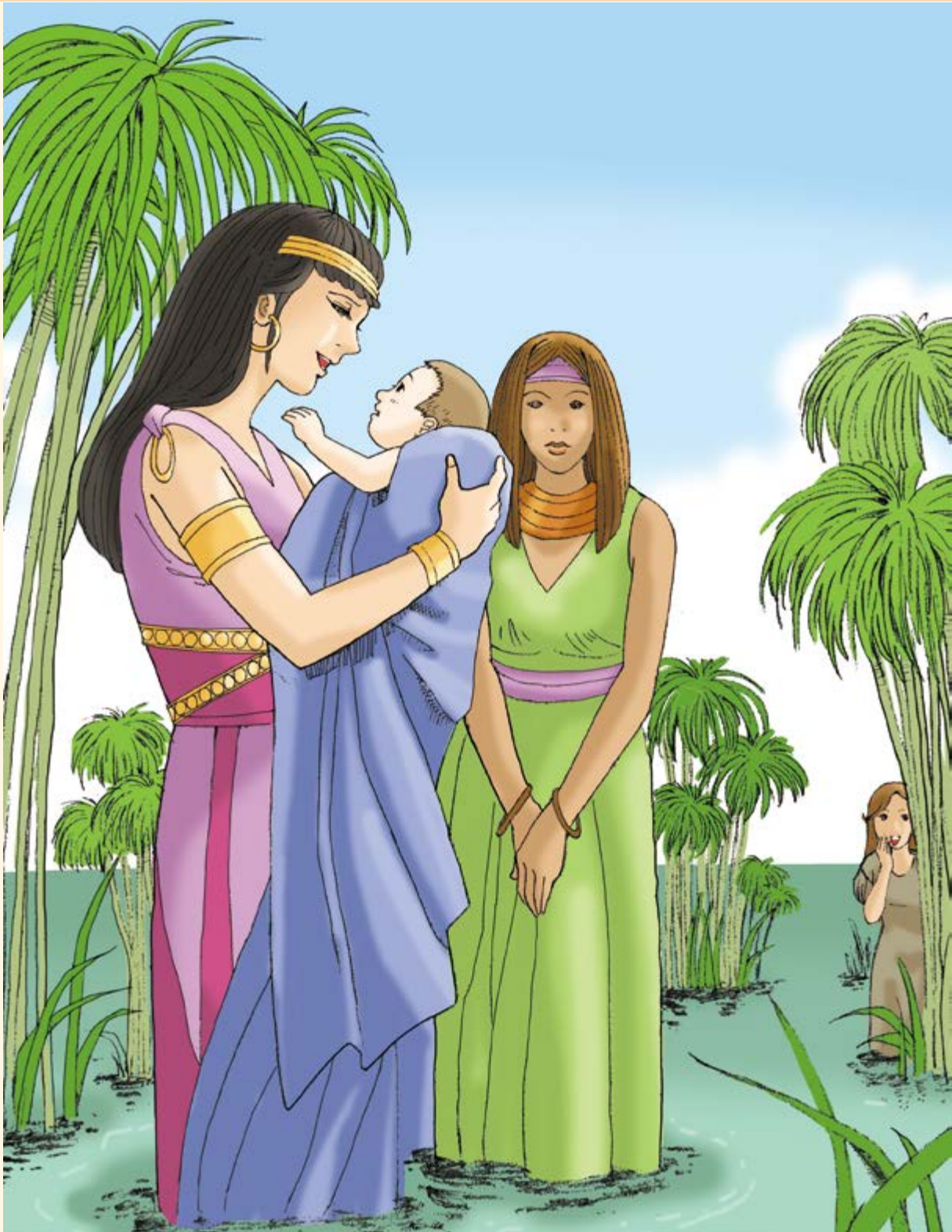


# 20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

출애굽기 1~4장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 속의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애굽으로 온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져 강해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적의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울까 두렵도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삼아 매우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sup>1)</sup>산파 두 명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살펴보고 있다가 남자 아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에 던져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sup>1)</sup> 산파 : 아기를 낳을 때 곁에서 돕는 사람.

성경 암송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sup>1)</sup>갈대 상자 속의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에게 ‘물에서 건졌다’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어른이 되면서 자기 백성이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양을 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만나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sup>1)</sup> 갈대 상자: 갈대로 엮어 만든 상자.



보호 받은 아기 모세



이שראל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שראל 백성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요?



바로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3개월간 몰래 키운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였나요?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 보호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모세를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읽고 적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공주를 통해 보호하신 것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의 말씀을 찾아보고 적어 봅시다.

①

②

③

④

말씀 : 유다서 1:24, 베드로전서 1:5, 룻기 2:12, 데살로니가전서 5:23



# 우리의 말씀을 배우고



##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래의 예화를 읽어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인도의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가스 회사에서 독가스가 새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가스 회사 근처에는 보팔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 곳인데 보팔이라는 도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출된 가스가 골목마다 스며들어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보팔이라는 마을까지 다가왔지만 이상하게도 가스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보팔에 살고 있는 이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실까요? 빈칸에 적어 보세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줘요.

Four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시편 121편을 읽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적어 보세요. 또,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으면 적어 보세요.

A large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 예 화



###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너무도 더럽고 못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던 강아지는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강아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는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름 : 밥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왕의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 경찰에 보고하였고, 강아지는 잘 보호되어 왕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과 강아지를 연결시켜 준 것은 바로 이름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란

선생님란